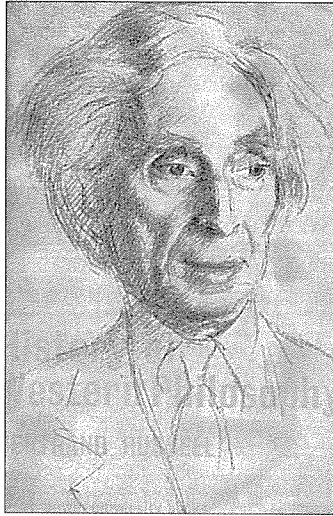


「이 한권의 책」에서는 과학자들의 삶이나 학문에 영향을 끼쳤거나, 깊은 감명을 받았던 저서를 과학자들이 직접 소개한다. 이번호에는 김용운박사가 얘기하는 「서양철학사」를 소개한다.

서양철학사

B. 러셀 지음



들이 엉뚱하게 느껴졌다.

게릴라전은 인간의 중요성이 직접적으로 노출된 채로 생명을 위협했다. 마을은 온통 공포와 부조리 속에, 밤에는 게릴라들이, 낮에는 군경들이 사람들을 무조건 의심하면서 말 한 마디만 잘못해도 여지없이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했다. 사르트르가 『구토』에서 묘사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눈 앞에서 벌어졌다. 그와 같은 부조리가 가져오는 아픔이 나를 자학하게 만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서양철학사』가 나를 구해준 것이다.

평화스러운 산골 마을을 이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과연 누구인가? 아무리 생각해 답이 나오질 않았다. 일제시대 국민학

## 理性의 눈을 뜨게한 ‘案内者’

필자는 일본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자랐다.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가야 된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귀국하여 전라도의 벽촌에서 살았다. 그 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읍내로부터 십오리나 떨어진 곳이었다. 그때 나에게서 몇권의 수학책과 B.러셀의 『서양철학사』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학교공부는 중단되었지만, 오히려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시골생활에서 얻었다고 생각한다.

### 不條理의 현실 이겨내

그 당시 그런 두메 산골에도 해방과 독립의 감격으로 인한 정치열은 대단했다. 그러나 사상과 이념의 대립은 사람들을 좌·우파로 갈라 놓았고 결국에는 게릴라전으로까지 확장시켰다. 도대체 언제 그들이 유물론의 철학을 배웠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공부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열성만은 대단했고, 나는 그럴수록 그런 모습

교 때부터 일본 천황주의의 명분론을 실컷 들으며 자란 나는 해방된 고국에서는 경직화된 공산주의의 논리를 들어야만 했고,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군경들의 정의로운(?)이론을 들어야만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 주장에 찬성하지 않으면 죽음이 뒤따른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일종의 이단재판과도 같았다.

남이 말하는 진리란 모두 허구에 불과하다는 생각뿐이었다. 논리 형식이 정연할수록 그 속에는 거짓을 내포한다. 그리하여 아무 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초조감이 가슴을 에는 것만 같았다. 정의란 무엇이냐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이냐를 물었다. 이 무렵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러셀의 “공산주의는 유대·기독교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의 왕국은 기독교의 지복천년(至福千年)의 이념과 같다”는 말이다.



金 容 雲  
(동명정보대학교 석좌교수)

게릴라군과 경찰이 번갈아 마을에 들어와 그때마다 젊은이들을 처형하거나 납치해 갔다.

마을에 젊은이들이 없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당시 마을 청년들은 정치 선전용 문장을 완전히 외워, 그야말로 청산에 물 흐르듯 말했는데 나는 겨우 일상적인 생활상의 의사만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였으니 바보로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무사했다.

필자가 수학을 평생의 학문으로 택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수학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왜 살아야 하는가를 단순한 지식이나 개념의 유희가 아닌 온몸으로 의식하고 싶었다. 가치관이 수시로 변했던 때이므로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수학보다도 차원높은 지성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준 것이 바로 B. 러셀의 역저인 『서양철학사』였다.

## 높은 차원의 지성을 열어

B. 러셀은 원래 수학자였다. 러셀은 젊어서 생에 대한 고민과 회의를 가졌고 몇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하면서 삶을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그때 맨처음 그를 구해준 것이 '수학'이었다. 그는 수학에서 이성의 빛을 느낄 만큼 훌륭한 지성적 인물이었고 실지 그는 세기적인 수학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30세를 넘기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 이때부터 '철학'의 세계를 탐구한다.

그 후 그는 나이와 더불어 학문연구의 대상을 역사, 문학, 마침내는 현실 참여로까지 끝없이 이성의 세계를 해매었다. 그는 흔히 간단하게 말하는 수학자도 철학자도 아닌, 거의 모든 학문에 흥미를 가졌던 20세기 최고의 거성이

다. 이성을 믿고 이성의 한계선에서 시대적인 상황에 직접 부딪치고 살아갔던, 누구보다도 스스로에게 가장 정직했던 인간이다.

## 신학과 과학 사이에 새 세계

그에게 있어서 철학은 사색아닌 '철학'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서양철학사』를 통해 내가 순수수학에 얽매어 자신을 속이고 있음에 자책을 느끼기까지 했다. 나는 지금도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준 이 책에 깊은 감사를 한다. 그는 철학을 신학과 과학의 중간에 있다고 보았다. 신학과 같이 절대적인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학의 경우처럼 전통적인 권위나 습관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이성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처음 회랍철학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분석철학까지, 사회적·문화적 분위기를 감안하고 현실의 인간생활과 밀착해 평이한 문장으로 철학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원저는 9백쪽이 넘는 대작으로 1946년에 나왔으며, 거의 해마다 개정판으로 나왔다. 이 책이 다른 철학 서적과는 달리 흥미를 일깨움 하는 이유의 하나는, 철학사를 사회적인 여러 조건과의 관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이란, 상식적으로는 고고해야만 하는 학문이지만 때로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인상을 갖게 해준다. 가령 고대철학 부분에서는 노예제 사회가 철학자에게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게 했는가?

또는 자유시민주의 사이에서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마찰이 정치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양상이 근대의 미국·영국에 있어서의 사회적 분위기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지적하고 있다. 오늘의 젊은이들

에게 현실을 이성의 눈으로 판단케 하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한다. 러셀 자신은 영국 제국주의 정책의 덕을 입어 부유해진 귀족이지만 자신의 계급에 대한 고발을 고대철학과 관련하여 했던 것이다. 필자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 외의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젊어서부터 늘 읽던 러셀의 영향일 것이다.

이 책의 특색은 철학은 항상 각 시대의 사회적 상황, 정치, 경제 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한 점이다. 필자는 순수수학에서 한국 전통수학을 연구했으며 한·일 전통수학의 비교를 통해 저마다 민족에게 있는 특유의 사고유형을 발견했다. 그 후 지적 대상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없이 호기심을 발휘했고 수학사·과학사·철학사... 드디어 문화인류학에서 미래학까지 지적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필자는 본래 학문에는 경계가 없으며 오늘날과 같은 학문영역도 대학 및 사회제도의 편의때문에 형성된 인위적인 구분이라는 생각을 한다. 학문은 조직이나 제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 인간이라면 그러한 다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것을 러셀 스스로가 그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었다.

지금도 때때로 순서에 상관없이 장을 골라 읽는다. 러셀의 가장 큰 매력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눈을 떼지 않았던 이성의 인간이었지, 결코 고고한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때문에 이 책은 철학적인 고양보다는 이성의 눈을 뜨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철 안에서 읽을 수 있는 평이한 문체와 수시로 독자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지성적 견해의 표출은 이 책의 위대함을 더욱 느끼게 한다. 57